



12면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음 5월 14일) 제352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사회적 물의 일으킨 도의원 의회 상임위원장 출마 '우려'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아

A 의원 "식사를 한 것은 사실... 1년 이상 시달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출마를 선언해 도민들은 다소 우려스런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

A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 문화건설안 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전북체육회에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인해 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받았고, 지난달 17일 열린 제40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공개 경고조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도민들은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장

출마와 관련,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켰으면 지속해서 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원장에 나선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해 A 의원에게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A 의원은 "식사 한 번 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과 관련,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며 1년 이상 그 건으로 시달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슬로건으로 시군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전주시를 찾아 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전북·전주 발전 적극 협력"

김관영 도지사,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전주시 방문  
시민·직원 450여명과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주제로 소통 나서

전주시는 18일 김관영 지사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을 슬로건으로 전북도정과 전주시 청 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공유했다.

또한 △전주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전주 MICE 복합단지 조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전주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우아~신리) 구축 등 전

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시는 이날 도지사와의 만남에서 '전주의 큰 꿈을 향한 전주 대변혁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전주 MICE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남부시장 상인회장 및 전주시 자생단체장들과 장보기 행사를 가진 후 오찬을 끝으로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옥기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전주는 도청 소재지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 전주시가 발전해야 전북이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 제일의 도시로 성장하고,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기선박 장착용 배터리팩 생산업체,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

자치도·군산시·새만금청  
일렉트릭과 투자협약 체결  
올 하반기 6공구에 공장 착공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주)일렉트릭과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주)일렉트릭과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원준희 (주)일렉트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일렉트릭은 친환경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등록과 특허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2024년 하반기 새만금 산단 6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선박에 장착될 배터리팩과 추진기를 연 5천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580억원, 신규 인력 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주)일렉트릭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산단은 전기선박용 배터리팩과 추진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

게 되었다"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산단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핵심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주)일렉트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그동안 차세대 전기선박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업역량을 바탕으로 새만금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차세대 선박용 전기 추진기 생산에 독보적인 전문기업 (주)일렉트릭의 군산 새만금산단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군산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여 성

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준희 (주)일렉트릭 대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지구의 스마트 그린산단 신공장 설립은 더욱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면서 "2030년까지 연간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선박용 전기추진기 시장에서의 현재와 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작년 말,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10.1조 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새로운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군산=이재춘 기자

## 전북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 발표... 총 121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를 통해 국장급 6명과 과장급 8명, 팀장급 17명, 6급 17명, 7급 31명, 8급 42명 등 총 121명을 결정했다.

이중 국장급 승진 내정자로 김중필 자치행정과장, 김희욱 기업애로해소지원과장,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이정석 지역정책과장, 이종훈 에너지수소



김중필 김희욱 문성철 이정석 이종훈 노형수

산업과장,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이 결정됐다. <국·과장, 팀장급 명단 16명> 전북자치도는 실·국·본부장과 부단체장,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문인사를 이날 중 공개하고, 내달 1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

사는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국장급은 관리직으로서 지도력, 통솔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조직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이 되는 자를 인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GIMJE CIVIC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2024

다시 뛰는 관계  
기쁨직한 도전

##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제시